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5층  
대표전화 1600-829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전인적 돌봄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호스피스'라는 VISION을 갖고 2014년부터 호스피스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1. 역사

서비스 형태 및 개시 년 월 일		
입원형	2014년 05월 07일	독립 병동형 (현재 29병상)
가정방문	2014년 04월 01일	가정 간호팀과 연계
가정형	2016년 03월 14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2020년 09월 01일	가정형 호스피스 본 사업 시행
자문형	2017년 08월 04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 2. 인력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	1	
의사	4	
간호사	병동 전담	18
	가정형	1
	자문형	1
사회복지사	3	
영적돌봄자	2	
보조활동인력	32	
자원봉사자	32	

\* 호스피스환자를 담당하는 약사 1명, 영양사 1명

## 3. 시설\_병동 내 시설

병실 현황 (29병상)	1인실	5
	4인실	6
	임종실 (해밀방)	1



병동 내 시설	상담실 I, II, 프로그램실, 가족실 I, II, 자원봉사자실, 목욕실, 실내정원, 처치실, 간호사실, 보조활동인력실, 화장실
병동 외 시설	호스피스팀, 옥외정원, 산책로, 기타 병원 편의시설 등

별 주기에 맞춰 직접 쓴 손편지와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정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모 박스를 구성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사별 대상자군 소그룹 사별 가족모임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요법 프로그램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다양한 요법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기분전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요법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인생 회고, 추억 나누기, 마음 전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미술요법 1,2	원예요법	미술요법	이·미용 (1주)
오후	음악요법1	음악요법2 푸드테라피 (3주)	다도요법 (4주)	음악요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요법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대체 음악요법, 놀이요법, 커피&차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일 보호자를 위한 점심식사 제공, 월 1회 Food Therapy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사별가족 돌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사별 가족모임이 중단되었고 대신 마음을 정성을 듬뿍 담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

6. 교육 및 홍보 활동

지난 5월 7일은 우리 기관이 오픈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인천교구 선종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인천지역 최초 '호스피스 보조 활동인력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호스피스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6년 KBS 스페셜 앵 '서진아 엄마는',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사진전, 2020년 호스피스 날 홍보 다큐 영상(Hospice in a day) 제작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마스코트 '호찌(호스피스 지킴이)'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020년 PI 경진대회에서도 '말기 암 환자의 임종 돌봄 CP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는 등 질 향상 활동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질환의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그 곁에서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하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